

# 수진사 수행환경 훼손

## 부동산업자 개발금지지역 무차별 벌목

### 행정당국에 수차례 진정

### 여론 확산 실태파악 나서

총화종 총무원이 소재한 남양주 수진사가 수년째 심각한 수행환경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천마산국립공원지역과 인접한 지역인데도 불법적인 산림 훼손과 개발이 수년째 진행돼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부동산개발업자 K씨가 공원보존녹지인 수진사 뒤편 산림을 수년째 무차별적으로 벌목하고 벌장으로 조성하는 등 불법적인 자연환경 훼손을 자행하고 있다"며 "수차례 행정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원상복귀되지 않는 이상 무허가로 개발해왔다"고 2월 10일 밝혔다.

수진사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K씨는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호평동 산57-12호와 산57-13호 일부를 10여년 동안 무허가로 개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불법적인 나무 벌목은 물론 석축공사와 축대공사 등을 통해 언덕과 잔디밭, 시멘트 포장도로, 조형물 등을 조성해 별장처럼 꾸몄다. 그러나 이 지역은 천마산국립공원에 걸쳐 있는 보존녹지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개발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수진사는 K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남양주시청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



부동산 개발업자 K씨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조성한 별장 모습. 멀리 수진사(점선안개) 보인다.

다. 오히려 K씨는 지난해 12월 수진사를 상대로 수진사를 통과하는 도로의 폭을 넓혀달라는 통행권확인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수진사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일삼고 있다.

이 도로는 최초 수진사 소유였다가 1995년 수진사와 K씨가 각각의 소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해 K씨 소유로 바뀐 뒤 1998년 K씨의 요청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1999년 K씨의 계약불이행으로 도로로 바뀐 이 토지의 소유가 다시 수진사로 바뀌었으며, 수진사가 받았던 토지는 K씨에게 환원됐다.

결과적으로 수진사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되고 K씨는 진입로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수진사측 박주환 변호사는 "교환계약

을 체결한 뒤 이를 불이행한 K씨의 행위는 수진사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남양주시청측은 측량 조사, 현지 답사 등 환경훼손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양측에 그간 취해진 행정조치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양주시청 공원녹지와 관계자는 "K씨의 개발행위나 수진사 경내지 도로 소송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2월까지 조사와 자료검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사친/남양주=박봉영 기자

# 공공기관 입사시 '종교 검열' 증가, 10개 기관 15건 확인

"종교자유 침해" 시정 촉구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22개부처와 16청, 174개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사지원서를 검토한 결과 '종교'란 항목을 기재

토록 요구한 사례는 10개 기관에 15건이 파악됐다"고 2월 7일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밝힌 10개 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정보통신연구원 등이었으며, 재정경제부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협약기관 굿네이버스 사원채용,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학교 교사채용,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는 월드비전, 선한사람들 등의 입사지원서에서도 '종교' 항목 기재를 요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3년 일반 기업에서도 사라진 입사지원서의

'종교' 항목 표기가 정부기관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례"라며 정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검토를 권고했다.

박봉영 기자

## 범어사 조계문 보물 지정

부산 범어사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월 7일 부산 범어사 경내에 있는 '범어사 조계문'을 보물 제146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범어사 조계문'은 그동안 '범어사 일주문'이란 명칭으로 1972년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 관리돼 왔으나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어사 조계문'으로 이름도 변경됐다.

'범어사 조계문'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전각 중앙공간에 조계문이 라는 편액이 있고 '범어사조계문중

창양문(1718년)' 등 문헌에 '조계문'이란 명칭이 나왔기 때문이다. '범어사 조계문'은 등굣길 긴 석조기둥과 짧은 목조기둥 4주를 세워 3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포계공포 위에 맞배 지붕으로 독특한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범어사 조계문'은 199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실측조사 당시 여간 중도리에서 발견된 목서명에 의하면 숙종 20년(1694)에 증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83년 해체보수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두식 기자

## 불교환경연대 임원 절반 축소

###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불교환경연대가 200여명에 달하는 임원을 100여명으로 축소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불교환경연대는 명단에 올라있으면서도 활동이 없는 임원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임원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고문과 중앙위원, 지도위원 가운데 활동의지가 없거나 참여가 없는 이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인으로 구성된 고문단은 6인으로, 120여명 규모의 중앙위

원 및 지도위원은 30여명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기하는 한편 재도약을 위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1년 출범 이후 추구해온 성장 위주의 운영에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시도가기 때문이다.

불교환경연대는 2월 23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 "수행과 포교에 매진"

### 조계종 중신회 신년법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2월 9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불기2500년 제1차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도영 스님, 행정자치부 오영교·권

설교총부 추병직·기획예산처 변양근·환경부 이재용 장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장 스님은 "불교의 근본인 '수행과 포교'를 염두에 두고 정진하자"고 법문했다. 김의정 회장은 "올해를 '인재양성의 해'로 정해, 능력 있고 불심 깊은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 봉은사 선지식 초청법회 3월 5일부터 8회 열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가 선지식 초청법회를 연다. 법회 주제는 '심검(壽劍)에서 올리는 사자후'이며, 3월 5일-4월 23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봉은사법당에서 열린다.

3월 5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

이은비 기자

## 능인선원 청년불교대학 3월 6일 개강, 선착순 모집

서울 능인선원(주지 지광)이 3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주간 불교와 수행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위해 '제1기 청년불교대학'을 개강한다.

능인선원 청년교육관 5층 청년법당에서 매주 월·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총 28회에 걸쳐 진

김강진 기자

## 황우석 후원 범불교연대 출범

'황우석 연구팀 후원을 위한 범불교국인연대'가 2월 6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동산반야회 김재일 이사장은 출범선언을 통해 "황 교수 지지자들이 1인당 1만원씩 10개월간 10만명이 참여해 100억을 만드는 모금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회는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하에 생명과학팀, 법률지원팀, 시민참여팀 등을 조직할 예정이다. 해외지부도 설립할 계획이다. 또 베이비시절포 연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한편, 황 교수팀을 위한 100일 기도회와 난자 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촛불기도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은혜사 주지

범타, 분사사 주지 월안 스님, 김재일 동산반야회 이사장, 김이현 황우석 난자기증모임 대표 등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조계종 제2-25교구 분사 주지 스님들이 공동대표에 위촉됐다.

이은비 기자

### 대구 '황·국·연' 촛불집회

'황우석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연합(황·국·연)'은 2월 4일 대구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사실보도와 진실규명, 연구재개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국·연은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순회 집회를 열고, 3월 1일 서울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배지선 기자

# 2006학년도

#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모집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는 2006학년도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계사불교대학 · 대학원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 · 동국대학교 · 사찰 강원 등에서 강론을 펼치는 교수님, 스님들을 모시고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자님들에게는 수행 실천하는 불자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불교대학

###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년 1학기 : 아함경, 불전개설, 불교윤리, 불교문화 2학기 : 금강경, 인도중국불교사, 대승불교  
2학년 1학기 : 선불교, 한국불교사, 불교사회복지 2학기 : 화엄경,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 모집분야

주간반 : 월·화 오전 10:30~12:30 / 모집정원 60명  
야간반 : 월·화 오후 7:00~9:00 / 모집정원 6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6:00 / 모집정원 60명

###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접수기간 : 1월 9일(월) ~ 2월 24일(금)  
면접 : 추후 개별 통보  
개강일 : 3월 초

## 불교대학원

###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기 : 여래장사상, 비교종교학 2학기 : 중관사상, 불전 성립사  
3학기 : 유식학, 한국불교사상사 4학기 : 법화사상,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 모집분야

주간반 : 월요일 오후 2:00 ~ 5:00 / 모집정원 40명  
야간반 : 월요일 오후 7:00 ~ 10:00 / 모집정원 4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40명

###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1년제 이상 불교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일한 학력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불교대학 졸업증 사본 1부  
접수기간 : 1월 9일(월) ~ 2월 24일(금)  
면접 : 추후 개별 통보  
개강일 : 3월 초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교무국 전화 02)720-1390 팩스 02)720-1391